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 동 교 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5년 37호

창조절 둘째 주일

2020년 9월 13일

예배시간 1부 09:30

2부 11:30

온 누리에 창조의 역사가 | 김호중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주께 간구하나이다(J. Pachelbel) **1부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2부 오르가니스트: 신채우 집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68장(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시고,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위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사 42:5), 우리가 함께 주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 65:18),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시다(시 89:12).

회 중: 아멘.

***송영**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회 중: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목 사: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회 중: 산들은 솟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 양처럼 뛰놀았다.
목 사: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회 중: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솟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 양처럼 뛰놀았느냐?
목 사: 온 땅아, 네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회 중: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아멘(시 114:1-8).

경배찬송 218장(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씀(욥 2:12-13)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응답송

회 중: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요일 1:9).
주여 용서하소서(경동찬송 38장) 다함께
주여 용서하소서 뉘우치는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침묵의 기도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
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
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
신(대하 7:14)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
름으로 선언합니다.

응답송

회 중: 아멘.
온 세상 사람들아(경동찬송 16장) 다함께
온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온 세상 나라들아 주 찬양하여라

말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4:26-31 1부: 김영우 집사
2부: 김선호 집사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
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
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
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
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
아 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
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 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
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주
검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
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1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생명을 담은 샘물 같아
마음에 품고 마실 때 마다 새 삶의 희망 솟아나네

서신의 말씀

로마서 14:1-3 1부: 이은희 권사

2부: 오영주 집사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2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마음의 병을 고쳐주네
고통에 지친 영혼이라도 다 나아 기뻐 노래하네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서 18:21-35 목사

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 번을 일곱 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섬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섬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멍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3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새날을 여는 햇빛 같아
 마음 문 열고 맞아들이면 근심과 어둠 사라지네

친교와 소식 목사
기도 함천진 장로
응답송 오르가니스트
특송 내 평생에 가는 길(P. P. Bliss) 이현숙 권사
설교 “용서를 부르는 용서” 채수일 목사
기도 설교자

보냄

봉헌과 찬송 269장(그 참혹한 십자가에) 다함께
***봉헌기도** 목사
***보냄찬송** 635장(하늘에 계신) 다함께
***축도** 목사
***송영** 오르가니스트
후주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arr. J. C. Pardini)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교우소식

▶장례: 故 김병호 장로(향년 89세 / 김만시 집사 부친, 이승렬 집사 장인, 이지영 교우, 이진성 교우 외조부, 8월 29일(토) 소천, 8월 31일(월) 발인)

2. 모임

▶당회: 오늘(9월 13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203호

▶2020년도 상반기 결산 제직회: 오늘(9월 13일) 2부 예배 후 본당

3. 2020년도 2학기 경동교회 장학생 명단

대학생(12명) 강주영 김유찬 안채연 양재운 윤향미 이 강 이새날 임건목 장승만
장하린 정수진 정현진

권사회(1명) 박동녀

(장학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2학기 교회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 다음 주일(9월 20일) 예배 위원

기도	성경봉독			
심정기 장로	1부	이강송 집사 · 채해림 집사	2부	김현우 집사, 윤가운 집사

특별봉헌 8월 30일

감사헌금

김선아(감사), 김수평 · 임문규(범사), 김영문 · 박성순(감사), 박세은(故 이장휘 집사 추모), 박진경(혼례 감사), 신호진(십일조), 윤지선(장례 감사), 이길수 · 이재주(감사), 정한움(감사), 채광천(십일조), 채수일 · 김경숙(범사 감사, 십일조, 자녀를 위한 감사)

지정헌금

‘코로나19’ 긴급구호헌금

김성식 · 김원희, 김영의, 김정애, 김혜영, 김호 · 서미희, 이재학 · 김필연, 이정옥, 전남일 · 박귀숙, 채수일 · 김경숙, 허보람

■ 예배 안내

부 서	일시 및 장소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설 교 자
유치부	주일 09:30 경동어린이집	창세기 1:26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최고권 전도사
어린이부	주일 09:30 장공채플실	창세기 1:26-28	하나님의 형상 따라	박재준 전도사
중·고등부	주일 09:30 여해문화공간	창세기 1:26-31	사람을 지으셨어요	김민정 목사
경청(청년)	주일 14:00 장공채플실	누가복음서 12:4-7	두려워하지 말아라	박선교 목사

주일예배(1, 2부) 참여방법

사전접수: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교회사무실 T. 02-2274-0161)

주일예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

찬송가와 성경책 개인 지참

개인 마스크(KF80 이상 권유) 필히 착용 후 입장

주일예배, 수요 성경인물 탐구 영상 안내

교회 홈페이지: www.kdchurch.or.kr 유튜브 검색: 경동교회

헌금(주정, 십일조, 감사, '코로나19'긴급구호헌금, 목적헌금) 안내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헌금내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 ○○○십일조, ○○○감사, ○○○구호, ○○○목적

다음 주일 말씀

9월 20일(창조절 셋째 주일)

성 경: 구 약(출애굽기 16:2-5)

서신서(빌립보서 1:21-30)

복음서(마태복음서 20:1-16)

설 교: "정의와 공의", 채수일 목사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1.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엮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2.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재시여 큰 풍량이 일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3.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재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1.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2.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맘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3.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바쳐 충성하리 아멘

296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1.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 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2.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 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3.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노래 부르리
(후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635장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기록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